

접착제 원부자재 가격 동향 등 발표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이사장 조한형)은 지난 달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제 10회 접착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접착제 원부자재 가격동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김평중 본부장은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지역별 수 K상황, 참여기업 수, 경쟁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전하고 국내가는 국제가를 기준으로 원가 등 가격 요인과 비가격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세계 석유화학 경기가 하강국면으로의 진입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 중동, 중국 내의 증설 가시화로 Down-Turn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동, 중국의 영향이 큰 에틸렌 및 BTX chain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편, 합성고무, PVC, 우레탄 등은 상대적으로 호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세미나는 산업용 점착제와 물성(서울대학교 김현중 박사), 에폭시 수지의 접착제의 응용(금호P&B연구소 김중생 부장), 신발용 접착제의 개발 동향(한국신발과학연구소 천제환 팀장), 접착제의 GHS대응 전략(한국화학시험연구원 이준현 팀장), REACH 사전등록실무 안내(한국화학시험연구원 임향식 책임연구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은 매년 업계 기술정보 제공사업의 하나로 연구자, 기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 제10회 접착제 기술세미나 개최

(사)한국포장기술사회

2008년도 포장기술사 발표 및 환영회 열어

총 회원 75명으로 증가



▲ 2008년도 포장기술사 발표 및 환영회 열어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명훈)은 제84회 기술사 자격시험에서 8명의 포장기술사가 합격했다고 전했다.

올해 탄생한 포장기술사는 ▲애경산업 김근영 차장 ▲삼성전자 김동준 대리 ▲풀무원 선인곤 과장 ▲(주)동원F&B 선준호 팀장 ▲소프트팩엔텍 유하경 대표 ▲인테크씨엔에스 이상재 대표 ▲두리포장산업 이성 대표 ▲한솔그룹 최승진 과장 등으로 기술사회 회원은 총 75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포장기술사회는 지난 달 21일~22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양평에서 신입회원 환영회를 열고, 포장기술사 선후배 우의를 다지는 한편,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발포스티렌 사용범위 제한 완화 요구

재활용을 꾸준히 증가, 현 규정 업계 현실과 맞지 않아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지명석)는 정부에 발포스티렌 사용 범위를 제한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에 나섰다.

정부는 EPS가 매립 시 분해가 잘되지 않고 재활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난 93년 완구·인형·종합제품 포장시 발포스티렌(EPS)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데 이어 2003년 소형 가전제품의 완충포장으로 사용되는 EPS를 연차별로 사용 금지해 올해 4월부터 부피 4만^{cm}인 제품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EPS 업계는 재활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규제가 처음 적용된 93년 EPS의 재활용률은 36.3%에 불과했으나 이후 비약적인 상승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70.6%(고지 재활용률 75.4%)의 재활용률을 기록, 현 규정이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주섭 부회장은 “지자체의 포장재 의무 재활용률을 보면 EPS가 74.8%로 PET의 73.7%나 유리병의 72.6%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부가 EPS의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도 규제는 완화하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협회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홍보를 통해 EPS 포장재 이미지를 개선할 뿐 아니라 정부에 비효율적인 현 규정에 대해 건의하여 규제 완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포장재 줄이기 소비자 발대식 개최

환경보호 기대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난 달 11일,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서울 YWCA 등과 공동으로 포장재 줄이기 캠페인 소비자 발대식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묽음포장 상품이 70% 이상이다. 묽음 포장은 과대포장, 이중포장으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이런 포장으로 생산, 유통과정에서 연간 천 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포장재만 줄여도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발대식은 ‘묽음포장 필요 있나요?’ 와 ‘포장재를 줄입니다’ 와 같은 피켓을 들고 포장재를 줄이자는 구호로 시작했다.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사무처장의 취지 설명, 그린 마일리지 소비자 약속 낭독으로 절정에 올라 포장재를 줄이자는 소비자 다짐으로 끝났다.

한국포장기계협회

제69회 이사회 개최

코리아팩 격년제 참가키로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지난 달 20일 제69회 정기 이사회를 상젤리제 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상식 회장은 “우리 협회가 그간 다져온 토대를 기반으로 향상된 업무체제로 회원

사를 뒷받침 하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이사회 시 집중 논의됐던 KOREA PACK 전시회의 격년제 참가의 재확인과 KOREA PACK 전시회의 향후 효율적인 참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결과, 지속적인 공동개최자로 전시회의 지원활동은 계속하고 협회의 KOREA PACK 전시회에 대한 확실한 위상 정립과 내적으로 인력보강 등을 통해 협회의 대내외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컴퓨터용 S/W의 무단복제사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므로 회원사간 각종 S/W를 공동 구매, 구매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회원사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모든 회원사들이 좀 더 협회 업무에 관심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철강협회	철강생산 2010년 연 7천만톤
---------------	--------------------------

제9회 철의 날 행사도 개최

철강업체들이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국내 철강생산 능력이 2010년엔 올해보다 40% 이상 많은 연간 7천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능력은 인도를 제치고 세계 5위로 한 단계 오르게 된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이구택)가 지난 달 9일 ‘제9회 철의 날’을 맞아 회원사 및 주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철강 생산능력 계획’에 따르면 현재 5천만톤수준인 국내 철강생산 능력은 내년 6천2백32만8천톤으로 불어나고 2010년에는 7천53만1천톤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1981년 1천만톤을 돌파한 이후 29년 만에 철강생산 능력이 7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고로(용광로) 부문 생산능력은 현대제철의 당진 일관제철소와 포스코의 신제강 공장 건설로 2010년 4천3백49만8천톤으로 커질 전망이다.

작년 말(3천88만8천톤)에 비해 40%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고철을 녹여 쇳물을 뽑아내는 전기로 부문도 2009년 동부제강의 전기로 신설로 작년 2천6백35만톤에서 2010년엔 3천1백3만3천톤으로 17.7%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심운수 철강협회 부회장은 “철강업계의 생산능력 증가는 철강수급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철강업계 설비투자액은 전년 대비 73.2% 늘어난 7조4천9백18억원으로 집계됐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액 중 철강업종의 비중이 14.2%에 달한다”며 “정보기술(IT)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9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윤 포스코 상임고문과 류창목 한금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남윤영 동국제강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각각 받았다. 김진수 포스코특수강 주임 등 2명은 대통령 표창, 허정현 현대제철 이사대우 등 2명은 국무총리 표창, 허주행 현대하이스코 상무 등 17명은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